

금강대학교! “논산시 지속가능발전대학 2기” 개강

-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무료로 제공되는
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를 위한 전문가 강의-
- 사례 중심 강의 통해 논산시민 역량 강화 기대-

- “논산시 지속가능발전대학 2기”의 개강이 지난 18일(수) 금강대학교에서 정용덕 총장과, 유병훈 논산시 부시장,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, 논산시민 수강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.
- 작년부터 이어져 온 논산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은,
 - 논산시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와 거버넌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, 이를 통해 사회, 경제, 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지역대학으로서 금강대학교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논산시청과 함께 개최하는 강좌이다.
- 18일 오후 3시에는 금강대학교 소강당에서 수강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초청강좌가 진행되었다.
 -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그린뉴딜 및 식량, 에너지, 물 등의 사례들을 이해하게 쉽게 풀어,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 무엇을 고민하고 해결해야하는지 강의하였다.
- 오는 25일에는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을 초청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시민으로서, 지역사회 일원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시간이 마련 될 예정이다.
- 지속가능발전대학 강좌는 금강대학교와 논산시청이 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한 강좌로서 수강료는 무료이며,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이 전달 될 예정이다.